

광주 북구 청년창업공간 '청년공작소'

“도시재생·활력”...임대아파트에 등지 튼 창업공간

청년공작소

LH와 오치마을공방·스마트타운 등 4개소 조성
마케팅·시제품 개발 지원 등...돌봄공백 해소도

1990년대 지어진 영구임대주택 지하 상가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광주시 북구가 육성하고 있는 '청년공작소'가 그 곳이다.

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청년공작소)은 '각화 청년공작소' (8개 기업), 두암4스마트타운 (5개 기업), 오치마을공방 (6개 기업), 두암2스마트케어빌리지 (5개 기업) 등 4개소다.

이 공간은 공공임대주택 유희공간(아파트·상가)을 활용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 정착 유도, 주거단지 활력 회복을 위해 조성됐다.

임주기업에는 2년간 개별사무실이 무상 제공(전기료 등 개별 부담)되며, I-PLEX,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광주디자인진흥원 등 창업 교육기관과 연계해 마케팅, 시제품,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된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인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창업공간 조성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주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시작했다.

이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녹색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구와 LH는 공공임대주택 유희공간 사용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었고 첫 프로젝트로 각화 청년공작소를 조성했다. 북구는 사업 경험을 토대로 행정안전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사업에 창업공간을 반영했다.

2020년 처음 문을 연 '각화 청년공작소'는 청년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화 영구임대주택 지하상가에 조성한 창업지원 공간(689.66㎡)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 2억1800만원을 투입했다.

2022년 조성된 두암주공 4단지에 조성된 '스마트타운'에는 ICT 분야 5개 기업이 터를 잡아 활동 중이다.

북구는 행안부 주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3억8600만원(특고 1억9300만원·시비 9650만원·구비 9650만원)을 들여 공간(267.04㎡)을 마련했다.

오치주공아파트에 위치한 '오치마을공방'에서는 공예 분야 6개 기업이 가죽공예, 비누제작 등 주민 상생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행안부 주관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이 곳(689.66㎡)에는 총사업비 4억원(특고 2억원·구비 2억원)이 투입됐다.

청년 창업가들은 최근 3년간 150여회 컨설팅, 행안부, 광주시 등 판로지원사업에 60여회 참여하며 사업 기틀을 다졌다. 또 자체 전시회를 열고 주민 대상 작은음악회, 봉사활동 등 주민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두암4스마트타운 입주기업인 오마주(대표 임보현)는 오는 26일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화 '술 권하는 사회'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북구청에서는 오치마을공



광주 북구는 지난 11일 두암주공 2단지에서 '스마트케어빌리지'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문인 북구청장(오른쪽 두 번째)과 청년 창업가가 기념촬영하는 모습.

방 입주기업이 공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기업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청년 창업가는 지난해 17억 4700만원(각화창작소 2억2600만원, 오치마을공방 1억4000만원, 두암4스마트타운 13억81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두암주공 2단지에서는 '스마트케어빌리지'가 구축됐고, 청년 창업가 5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스마트케어빌리지는 과거부가 주관 스

마트빌리지 보금·확산 사업의 하나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입주민 건강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북구는 지난해 11월 LH광주전남 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총 9억3000만원(균특 7억4400만원·구비 1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3월 공사에 착수했다.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던 두암주공 2단지 지하상가(연면적 689.66㎡)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했다.

북구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지역 공동체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와 주민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거점으로 재구성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 시기는 늘 도전과 경험의 연속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나아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북구와 북구 청년공작소가 지난 8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빛고을현대메이커페어'에 참여했다.



오치마을공방 내부 전경

광주경총-조선대, 실무 강화·인재 매칭 전략 공유

G-HR 미래인재포럼 개최
인세 절감·실습 연계 논의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조선대학교가 지역 기업의 실무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재 매칭을 동시에 겨냥한 산학 협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조선대학교와 지역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G-HR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출범한 G-HR 포럼의 연속 프로그램으로 기업 실무자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과 기업 간 인세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참석자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 조선대학교 현장실습 사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는 김동우 세무사(삼일 PwC아카데미 전임교수)가 연사로 나서 '인사·재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인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조선대학교와 지역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G-HR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세무사는 법인 결산 마무리 전략과 재무비율 관리 방안을 비롯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통합 고용세액공제, 통합 투자세액공제 등 기업 경영과 채용 실무에 직결되는 제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인력 채용과 투자 확대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전략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2부에서는 조선대학교 김석환 교수가

'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현장실습이 학생에게는 전공 역량을 실무에 적용하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사전에 검증·확보할 수 있는 채용 연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경총과 조선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인사담당자 네트워킹을 '인사 노무관리자협의회'와 연계해 정례화하고 학과별 우수 인재 공유와 직무별 멘토링 등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G-HR 포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기업 인사 책임자와 대학 취업 관계자가 직접 소통하는 실질적인 협력 창구”라며 “세무 전략과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경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영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소공인 성과대회'에서 지역 소공인의 성장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원단체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인쇄소공인 특화 교육·사업화 지원 등 공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소공인 성과대회'에서 지역 소공인의 성장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원단체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행사로, 제조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공인의 발전에 기여한 전국의 우수 소공인과 유공자, 지원단체를 발굴·포상해 소공인 진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015년부터 동구 서남동 일대 인쇄 소공인을 중심으로 '인

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특화 교육과 사업화 지원,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또한 2011년부터는 공예를 비롯한 지역 소공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제품 개발, 디자인 개선, 유통·판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 소공인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소공인들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소홍 기자 photo25@